

研究論文

박정희의 경주고도(慶州古都)개발사업

최광승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정치사 전공
kyschom@empas.com

- I. 머리말
- II. 박정희의 역사관 변화와 원인
- III. 경주관광종합개발
- IV. 새로운 역사 만들기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박정희가 추진한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살펴보는 데 있다. 1971년부터 추진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은 약 125억 원이 투입된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사적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문화재 보수·정화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었다.¹⁾ 박정희는 어느 대통령보다 적극적으로 경주의 신라 유적지를 보수·복원하였고, 10년간의 개발을 통해 경주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하였다. 비록 1970년대 진행된 박정희의 여러 정책²⁾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0·26 사건 직전까지 박정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필생의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경주고도개발사업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박정희의 관심은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후 18년의 집권 기간 동안 꾸준히 지속되었다. 문화·예술·여론조사·언론·선전 및 보도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문화공보부가 발족하였고, 문화재보호법의 제정과 역사인물들에 대한 성역화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시기에 추진된 문화정책, 성역화 사업 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문화정책에서 박정희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들이다(전재호 1998; 최연식 2005, 2007; 박영택 2005; 권오현 2010). 이들은 저서와 연설문을 통해 드러난 박정희의 역사관에 주목하고, 박정희가 관심을 가졌던 전통문화와 존경했던 역사인물인 이순신(李純信), 세종(世宗), 신사임당(申師任堂)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연구하였다.

둘째,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오명석 1998; 정갑영 2000; 유상수 2011). 쿠데타를 통한 집권으로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하였기에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계몽·동원하기 위한 부처로 만들어진 문화공보부의 역할³⁾과 전통문화 유산을 관리·보급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1962년)과 문화예술

1)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문화공보부, 1979), 286쪽.

2) 1970년대에 진행된 주요 정책들로 새마을운동(1970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1973년) 등이 있다.

3) 유상수, 「5·16 군사정부의 공보정책: 공보조직의 변천과정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연구회 5·16 군사정부수립 50년 학술회의(한국역사연구회, 2011. 5. 14), 105쪽.

진흥법(1972년), 전통문화의 창조·보존·계승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5개년계획(1974년) 등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박정희의 전통문화정책에 대한 이 연구들은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박정희의 전통문화정책은 국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정책이며, 국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박정희가 전통문화정책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체제정당성을 획득하고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셋째, 박정희 개인의 의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만큼 박정희가 가지고 있던 역사관(특히 식민사관)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박정희가 존경했던 역사인물들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박정희의 역사관을 식민사관에 기반한 부정적인 역사관으로 단정짓고, 박정희 시기 추진된 성역화 사업 중 이순신, 세종 등 한정된 인물만을 연구함으로써 1970년대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역사관이 전환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체적 민족사관에 적합한 역사적 인물들이 박정희에 의해 복원·재탄생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⁴⁾

둘째, 박정희의 전통문화정책과 성역화 사업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수용되고, 그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는 역사적 인물들과 그들의 행적에 대한 정신교육 강화 및 대중동원, 그리고 관광⁵⁾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국민들에게 주입·변모시키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경주고도개발사업과 그 일환으로 추진된 신라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박정희의 경주개발과 신라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성역화 사업 연구가

4) 전재호는 박정희의 전통문화정책이 19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1970년대에 변화하였음을 감지하였으나 그 역시 이순신과 세종이라는 인물만을 다루고 있어 1970년대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포착하진 못하고 있다.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집(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5) 그동안 관광을 통한 수용의 중요성은 주목받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로 강화도 전적지에 대한 정화사업과 관광의 결합 과정을 보여준 은정태의 연구(은정태, 「박정희 시대 성역화 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제15호, 역사문제연구소, 2005)가 있다.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⁶⁾ 그렇다면 박정희에게는 경주와 신라의 역사가 어떤 의미이기에 그토록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을 추진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첫째, 18년의 집권 기간 동안 박정희의 역사관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변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신라의 역사인물들에 대한 박정희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같이 살펴볼 것이다. 둘째, 1971년에 만들어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과 당시의 여러 자료를 통해 박정희의 경주고도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찾아볼 것이다. 셋째, 경주고도개발사업을 통해 박정희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 수용시켰는지 알아볼 것이다.

II. 박정희의 역사관 변화와 원인

1. 퇴영(退嬰)과 조잡(粗雜)과 침체(沈滯)의 연속사(連續史)

5·16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을 당시 역사를 바라보는 박정희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해 남긴 글을 통해 그의 역사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박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동경하였고, 일본인 교육으로 인해 일본역사에 나오는 위인들을 좋아하였다.⁷⁾ 또한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며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메이지유신의 주역들을 좋아했으며, 일본 청년장교들이 일으킨 2·26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단연 이순신이었다. 박정희는 어릴 적 읽었던 이광수(李光洙)의 소설을 통해⁸⁾ 이순신을 민족 비극의 상황에서 민족 저항의 힘을 결집한 영웅이 아닌 자신의 인격적 힘으로 열등한 민족을 개조하는 영웅이자 조선민족의 고질적 병폐라고 강조한 당파싸움에 의해 희생된 인물로 인식하였다.⁹⁾ 이처럼 이순신을 바라본

6) 박정희와 경주개발 및 신라의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연구로 임원현·황오기의 논문(임원현·황오기, 「관광개발기본계획」, 『경주대학교 논문집』 7집, 경주대학교, 1995. 12)과 이주연의 논문(「전통에 관한 담론 분석: 문화정책과 대통령 담화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이 있으며, 정치학에서의 논문은 전무한 상황이다.

7) 박정희, 「나의 소년시절」, 《월간조선》, 1984년 5월호, 95쪽.

8) 위의 글.

점은 박정희에게 식민사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는 1963년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책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우리의 역사를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속사’¹⁰⁾로 정의하였다.

우리의 역사는 자초지종 남에게 밀리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온 역사로, 스스로를 악한 자로 보이 버리고 남을 강대한 것으로 보이 버리는 비겁하고도 사대적인 사상, 이 고질, 이 나쁜 유산을 거부하고 뿌리 뽑지 않고서는 자주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¹¹⁾

[...] 모든 악의 창고와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버려야 옳은 것이다. 우리는 막연한 옛날의 미련이나 허술한 역사의 나이만을 자랑할 수 없고, 대담한 새 출발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발전은 끝내 방해당할 것이다.¹²⁾

물론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쿠데타를 역사적 귀결로 설명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박정희는 해방 이후부터 제2공화국까지의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쿠데타에 대한 정당성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5·16 쿠데타를 통해 시대의 구악을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 시기 신라의 역사에 대한 박정희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역사 속 신라에 대한 박정희의 평가는 혼재되어 있다. 박정희는 “서구의 신조이자 가치인 창조, 협동, 애국이 우리의 선조가 지켜온 역사적 유산이며, 홍익인간과 화랑도 정신에 남아 있다”¹³⁾고 말하며 신라의 화랑도 정신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화랑도 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은 당(唐)이라는 외세의 힘에 의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절하하였다.

식민사관의 영향과 쿠데타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우리의 역사를 거부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박정희의 역사관은 196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9) 이준식, 『박정희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홍석률 외, 『박정희 시대 연구』(백산서당, 2002), 185-186쪽.

10)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향문사, 1963), 245쪽.

11) 위의 책, 246쪽.

12) 위의 책, 249-250쪽.

13) 박정희, 『민족의 지력』(광명출판사, 1971), 256-257쪽.

변화하기 시작해 1970년대에 들어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의 역사를 ‘퇴영과 조잡과 침체만이 이어진 역사’로 정의했다면 1970년대 들어서 박정희는 우리의 민족사를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해석하며 “희망과 기대로써 우리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¹⁴⁾고 말하였다. 또한 서구문화의 장점과 한국문화의 단점을 비교하던 차원에서 벗어나¹⁵⁾ 이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도입된 외래문화의 장점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그렇다면 “불살라버리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던 우리의 역사를 박정희는 어떤 이유에서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로 새로이 보게 된 것일까?

2. 주체적 민족사관으로의 전환

박정희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렴(金正濂)은 1970년대 역사관이 변화된 이유를 1960년대의 두 번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으로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에 대한 자신감에서 찾고 있다.¹⁷⁾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일각에 나뒹굴고 있는 지학적 체념을 극복하고 자기의 능력을 새롭게 재발견하며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불리일으켜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통 안에 숨어 있는 민족적 지혜와 긍지를 최대한도로 계발하고 민족주의적 정열과 환희로써 합심하여 전진할 것을 선언했다. 그 후 나(박정희)는 나 나름대로의 정열과 기대를 가지고 민족문화의 융성을 기약하고 전통을 새롭게 발전시킬 많은 제도적 조치를 취했다.¹⁸⁾

[...] 민족사를 주체적 사관으로 해석하고 민족의 고난과 역사 속에서 한민족이 얼마나 끈기 있게 생을 향유해왔는가를 역력히 들추어내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과거와 결합시켜 주체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과업을 책임 있게 성취해갈 힘의 원천을 발견토록 애썼다. 그리하여 우리의 역사를 희망과 기대로써 긍정적으로 보는 바탕을 찾아놓았다.¹⁹⁾

14) 박정희, 앞의 책(1971), 270쪽.

15)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날 길』(동아출판사, 1962), 88-96쪽.

16) 박정희, 앞의 책(1971), 268쪽.

17) 김정렴,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랜덤하우스중앙, 2006), 525쪽.

18) 박정희, 앞의 책(1971), 269-270쪽.

박정희 역시 1960년대를 “장기적인 경제자립의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전근대 저개발사회에서 근대적 생산사회로 도약을 이룬 성장의 10년”²⁰⁾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성장은 박정희로 하여금 전통문화를 근대화와의 조화를 맺기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화 자체를 추진시키는 생산적 힘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²¹⁾,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경제개발을 저해하는 방해요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프로테스탄티즘이 서구자본주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 것처럼 우리의 전통이 개발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보았다.²²⁾

그러나 경공업 중심의 수출지향 산업화로 1960년대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노동자 계급의 희생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 1960년대 후반에 들어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전통적인 사회질서와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국가 중심의 근대적 통합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문화행정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 시기에 박정희가 ‘제2경제론’을 들고 나온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²³⁾ 여기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닉슨 독트린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요구, 북한의 대남무력도발로 인한 경제·안보 불안이 박정희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박정희는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한 3선 개헌안과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한다. 또한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충성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위로부터의 교육을 통해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1970년대 변화된 박정희의 역사관과 정책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바로 신라의 통일과 이에 기여한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다. 1970년

19) 위의 책, 270쪽.

20) 위의 책, 144-145쪽.

21) 위의 책, 271쪽.

22)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논문으로 이주연의 논문(「전통에 관한 담론 분석: 문화정책과 대통령 담화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이 있다.

23) ‘제2경제론’이라는 용어는 1967년 11월 11일 박충훈(朴忠勳) 경제기획원 장관이 제일 처음 사용하였고, 박정희가 처음 언급한 것은 1968년 1월 15일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였다. 박정희는 증산이나 수출, 건설과 같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를 ‘제1경제’로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마음가짐 등 근대화를 하는 데 철학적인 바탕 또는 기초를 ‘제2경제’라 불렀다. 박정희는 ‘업진’으로 불리는 체념의식을 없애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5집(대통령비서실, 1969), 259쪽.

연두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국력이 충실하고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시기”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 시절과 더불어 통일신라의 시기를 조국근대화 작업과 민족중흥의 이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²⁴⁾ 이제 화랑정신은 홍익인간과 더불어 자주와 민주,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의 민족정신²⁵⁾으로까지 격상되기에 이른다. 박정희는 화랑도가 “인간 수양 면에서 도의 정신으로 인의, 예지, 효제, 충신의 대도를 체득시켰고 정치 면에서는 민주정신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강직하고 관대하고 과감한 기풍을 길러주었으며, 군사 면에서는 나면서 죽을 때까지 죽음뿐이라는 딱딱하고 살벌한 것이 아니라, 우아한 정서를 겸하여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문무겸전(文武兼全)을 지향하였다”²⁶⁾고 보았다. 그리고 박정희는 신라의 통일은 화랑도를 통한 국민적 훈련과 교육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이라는 외세까지 물리친 노력과 인고의 결과로 보았다.

3. 남북한의 체제 경쟁

1970년대 박정희의 주체적 민족사관으로의 변화와 신라의 통일과 화랑도에 대한 강조에는 역사적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북한정권과의 체제 경쟁이 담겨 있다. 박정희는 북한이 민족의 전통 자체를 파괴하는 세력이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이데올로기로 위장하고 있다고 보았다.²⁷⁾ 반면 북한은 남한 정권을 미제국주의자의 하수인 또는 괴뢰라 평가하고 자신들의 정권의 정통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면서 일찍부터 민족주체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역사를 김일성과 그 가계를 중심으로 한 혁명역사와 남한의 국사에 해당하는 일반역사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사 부분이다.²⁸⁾ 북한에서는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24)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했던 6집(대통령비서실, 1970), 50-51쪽.

25) 박정희, 앞의 책(1971), 12쪽.

26) 위의 책, 14-15쪽.

27) 위의 책, 267쪽.

28) 혁명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 중 고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이고 일반역사 중 고대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3%이다. 이영화, 「북한의 고대사 연구 동향」, 『한국고대사 탐구』 3권(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09. 12), 185쪽.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지배했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현재의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되거나 활동한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대한 역사만 가르치고 있다.²⁹⁾

“나(탈북자)는 여기 와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 유관순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 (남한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어찌면 고대사부터 이리도 다른가 싶었어. 북한에서 나는 김유신이 사대주의의 원조라고 배웠고 이성계는 부정해야 될 대상이며 3·1 운동은 김일성의 아버지가 조직한 조선국민회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배웠어. 33인 민족대표인가 뭔가 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지..... 뿐만 아니야..... 여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조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데..... 태정태세 뭐라더라..... 마치 우리가 김일성 가계사를 줄줄 외우듯이 말이야..... 그런데 이북에서는 왕 이름은 외울 필요가 없어..... 역사적 정통성도 여기서는 이씨 조선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이북에서는 고구려로부터 정통성을 끌어오려 하지.....”³⁰⁾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에서 1960년대까지는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었다는 점이다.³¹⁾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라를 한반도의 전쟁에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인 세력으로 비판하며, 1979년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전사』에서 신라에 의한 통일은 아예 삭제된다.³²⁾ 1970년대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화에 따른 주체의 역사관이 대두되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더욱 강조하였고, 현재 북한지역에 기반을 둔 과거 세력인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를 정통성을 가진 역사로 인정하였다.³³⁾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라에 대한 남북한의 평가는 시기만 달리할 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판과 찬양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해 민족의 자주를 강조한 점과 자신이

29) 위의 논문, 190쪽.

30) 정유선, 「귀순자의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1998), 39쪽.

31) 김순자, 「북한의 전근대 반침략 투쟁사 연구」, 한국사학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북한역사학 50년』(푸른역사, 2003), 128쪽.

32) 연갑수, 「북한의 고종세 정치사 연구」, 한국사학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북한역사학 50년』(푸른역사, 2003), 161쪽.

33) 위의 논문, 161쪽.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존재했던 과거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은 마치 ‘이란성 쌍둥이’를 보는 것과 같다. 우리 민족의 황금시대를 고구려에서 찾고자 했던 북한³⁴⁾에 대응하기 위해 박정희는 남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신라역사에서 찾아야만 했다. 신라의 역사와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남한정부만이 자주적인 민족적 정권임을 주장했고³⁵⁾, 그 속에는 박정희 자신에게 통일의 정통성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과거 우리 역사를 보면 한국이 신라·백제·고구려 3국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신라가 통일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정립이 되어서 통일이 될 때까지 약 7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상으로 볼 때 통일이 된 것은 문무왕 8년 서기로 680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3국 통일을 위해서 신라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서두른 지 120년 만에 통일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진흥왕 때부터 약 120년간에 화랑도를 만들고 국민들을 훈련하고 정신 교육을 하고 3국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해서 120년 만에 비로소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통일이 될 때에는 신라 단독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도 당나라 군사가 생각이 달라져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뭉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유신 장군이 지휘하는 신라의 군대가 당나라 군대와 근 10년 동안 혈전 고투를 해서 당나라 군사를 쫓아내고 완전히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더라도 이 통일 문제란 염원이나 갈망만을 가지고 쉽게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많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며 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³⁶⁾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역사에 대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정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역사유물 발굴 경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신라고분에서 발굴된 찬란하고 화려한 유물은 박정희에게 통일의 정통성과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공고히 해주는 선전도구가 되었던 것이다.³⁷⁾

34)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호(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998), 129-130쪽.

35) 심재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 비핵화와 대안적 안보체제』(한울, 1996), 156쪽.

36)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9집(대통령비서실, 1973), 47-48쪽.

37) 이우영은 남북한의 문화정책이 공유하는 특성으로 1) 문화정책이 정치, 경제에 예측되고, 2) 민족문화건설을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117-118쪽), 신라와 고구려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찾는 것에서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보여주고 있다.

4. 문화재 보수·정화 및 성역화 사업

식민사관에서 주체적 민족사관으로의 전환과 함께 박정희의 문화정책도 1970년대 들어 변화하였다. 그 첫 번째 특징이 호국선현과 국방유적정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수·정화사업이다.³⁸⁾

박정희는 표준영정 및 동상 제작, 기념일 제정, 우표, 화폐 발행 등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다.³⁹⁾ 뿐만 아니라 고대의 유물 발굴을 통한 역사의 복원과 정신수련기관 건립 방법을 통해 '새로운 전통과 역사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민족주의와 반공에 필요한 역사와 인물만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국을 통일시킨 신라와 그 주역들이 강조되었고⁴⁰⁾, 문화정책과 성역화 사업은 유신체제로 가면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국력이 안으로 충실하고 밖으로 뻗어 나가는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는 찬란한 문화의 꽃이 피고 또는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찬란한 신라의 문화라는 것은 신라 삼국통일 시대를 전후한 신라가 가장 국력이 충실하고 융성한 그러한 시기에 우리 신라문화의 전성시대를 이루었고, 또 이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조국의 근대화 작업이다, 또는 민족중흥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우리나라의 민족문화의 중흥이라는 그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⁴¹⁾

박정희는 통일신라시대를 우리 역사를 통틀어 국가와 민족이 크게

38) 문화공보부, 앞의 책, 287쪽; 김정렴은 박정희 재임 당시 보수·정화사업을 추진했던 유적들을 ① 국난극복의 유적, ② 민족사상 선현유적, ③ 전통문화유적, ④ 6·25 전쟁 기념유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김정렴, 앞의 책, 524쪽).

39) 박정희 시기에 진행된 성역화, 복원사업을 다룬 논문으로는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집(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최연식,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2호(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권오현, 「역사적 인물의 영웅화와 기념의 문화정치」,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2010) 등이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념 방식에 대해서는 권오현, 위의 논문, 9-10쪽 참조.

40) '10월 유신' 헌법개정안 투표를 앞두고는 “10월의 유신은 김유신과 같아서 / 조국통일 되듯이 남북통일 이뤄요 /”와 같은 동요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허련화, 「김동리의 장편역사소설 <삼국기>와 <대왕암>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한국현대문학회, 2010), 414쪽.

41) 대통령비서실, 앞의 책(1970), 50-51쪽.

중흥을 이룬 시기 중 하나로 언급했고, 1976년에 박정희가 직접 작사·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나의 조국>의 3절 가사⁴²⁾처럼 새마을정신과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5. 관광산업의 육성

1970년대 박정희의 문화정책의 두 번째 특징은 관광을 주요한 국가산업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1961년에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에 관광의 주요한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와 있듯이 이미 관광산업이 외화획득의 좋은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는 수출지향적인 경제정책하에서 노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과 관광코스 개발, 식당과 숙박시설 같은 제반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광산업은 매년 다른 산업들에 우선순위가 뒤처져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부고속도로 개통(1970년)으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 범위가 확장되었고, 경제성장과 함께 관광은 대중적인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여기에 베트남과병 군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년)에 무역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관광시설을 확충·개선하여 외국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계획⁴³⁾을 세우는 등 관광산업을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박정희는 관광정책을 국가중심의 근대적 통합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행정의 일환으로 보았고⁴⁴⁾, 관광산업을 외화기득률이 높은 산업으로 인식하여 문화재 보존과 외화획득을 병행해 이루고자 하였다.⁴⁵⁾

결론적으로 박정희는 주체적 민족사관으로의 전환과 외화획득의 방법, 북한과의 체제 경쟁 속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일의 비전을

42) 박정희 작사·작곡의 <나의 조국> 3절 가사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 영광된 새 조국에 새 역사 창조하여 /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43)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경제기획원, 1971), 108쪽.

44) 인태정, 「한국 근대 국민관광의 형성과정-박정희정부 시기의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8호(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370쪽.

45) 《경향신문》, 1972년 11월 3일자.

제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라의 고도 경주를 관광산업으로써 육성·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역사와 문화재 복원 및 역사적 인물의 성역화 작업은 1970년대 박정희의 역사관과 문화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경주관광종합개발

1. 경주관광종합개발의 시작

경주관광종합개발이 언제 구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개의 의견이 있다. 하나는 박정희가 1971년 6월 포항제철소 고로화입식에 참석했다가 상경길에 들른 경주에서 허물어져가는 불탑과 불상, 관리되지 않는 고분군(群)을 보면서부터라는 것이다.⁴⁶⁾ 같은 이야기를 경주개발에 참석한 많은 담당자들 역시 하고 있지만⁴⁷⁾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포항제철 고로화입식은 1973년 6월 8일에 진행되었는데 이날의 고로화입식은 당시 포항제철 사장인 박태준(朴泰俊)이 주관하였다. 박정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1973년 7월 3일에서야 포항제철을 방문하였다.⁴⁸⁾

또 다른 의견은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참여했던 정재훈(鄭在薰)의 회고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계획안이 작성되기 2년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이다.⁴⁹⁾ 이 주장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1969년 경주시에서 「관광개발기본계획」⁵⁰⁾이라는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었고 1970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역시 경주시에서 측량과 설계를 진행했는데, 이 자료들이 정재훈이 참여한 1971년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⁵¹⁾ 그러므로 정재훈의 회고와 경주시에서 작성한 두 자료의 연관성을 종합해볼 때 최초의 경주종합개발계획은

46) 《매일신문》, 2006년 10월 14일자.

47) 경주개발동우회, 『그래도 우리는 신명바쳐 일했다』(고려서적, 1998), 91쪽.

48) 포스코 박물관에 연락하여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였다.

49) 한국고고학학회 엮음, 『일곱 원로에게 듣는 한국 고고학 60년』(사회평론, 2008), 407쪽.

50) 경주시, 「관광개발기본계획」(경주시, 1969).

51) 경주개발동우회, 위의 책, 91쪽.

大統領 閣下 指示事項

新羅古都는

雄大, 輝煌, 精麗, 淵遠, 雄取, 全裕, 優雅

을 充分히 利用할 수 있도록 再開發 할 것.

1971. 7. 16.

(新羅古都 示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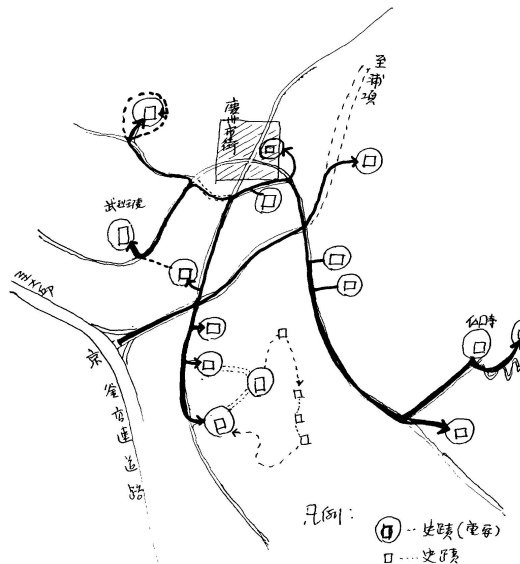


그림1-박정희가 친필로 작성한 지시사항과 경주관광코스(「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中)

경주시의 「관광개발기본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⁵²⁾, 이것이 2년 후에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완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주고도 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52) 임원현·황오기의 논문(1995) 역시 1969년에 만들어진 「관광개발기본계획」(1969)을 경주관광개발의 시초로 보고 있다.

1971년 6월 12일 박정희는 경주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지시한다. 이 지시에 따라 정소영(鄭韶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관광개발계획단이 발족되었고, 6월 15일에는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어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계획단은 국내 및 일본관광협회 관계자들의 자료를 참고하여 지시를 받은 지 한 달 만인 7월 13일에 계획서를 완성하여 7월 16일 박정희에게 보고한다. 이 계획서가 바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다. 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박정희는 “우선 꼭 해야 할 것, 뒤로 미루어두었다가 어느 시기에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해도 될 것,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 등으로 분류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⁵³⁾고 언급하며 “신라고도(新羅古都)는 웅대(雄大), 찬란(燦爛), 정교(精巧), 활달(豁達), 진취(進取), 여유(餘裕), 우아(優雅), 유현(幽玄)의 감(感)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할 것”과 ① 개발 대상 지역 지정, ② 각 지구별 세부계획 및 문화재사적의 보수, ③ 경주시 도시계획과 ④ 도로개발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의 수정사항을 5페이지에 걸쳐 직접 친필로 작성하여 지시하였다(그림1).

경주관광종합개발의 기본계획은 당시 경주 시가지를 중심으로 구정(九政) 및 동방(東方)자구를 부도심으로 하고, 보문호 일대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동시에 13개 사적지구(① 토함산지구 ② 무령왕릉지구 ③ 남산지구 ④ 미추왕릉지구 ⑤ 낭산지구 ⑥ 패릉지구 ⑦ 명활산지구 ⑧ 오릉지구 ⑨ 월성지구 ⑩ 김유신장군묘지구 ⑪ 황룡사지지구 ⑫ 문무대왕지구 ⑬ 금강산지구)를 정비하며, 이들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개발계획의 핵심은 보문단지⁵⁴⁾로, 48만 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보문호 주변에 관광호텔과 종합관광센터를 비롯한 골프장, 어린이공원, 유스호스텔, 낚시터, 케이블카, 전망대, 휴게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유흥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얻고자 하였다.

박정희는 경주개발에서 보문단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⁵⁴⁾ 그래서 보문유원지를 특정구역화하고 외국인을 위한 쇼핑센터를 면세물품 판매업으로 지정하여 외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었다. 또한 관광객이 선택하여 관광할 수 있는 표준 관광코스도 마련하였다(그림2).

53) 경주개발동우회, 앞의 책, 328쪽.

54) 보문관광단지를 구상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던 팀은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대만, 홍콩, 일본 등을 답사하기도 하였다. 경주개발동우회, 위의 책, 94-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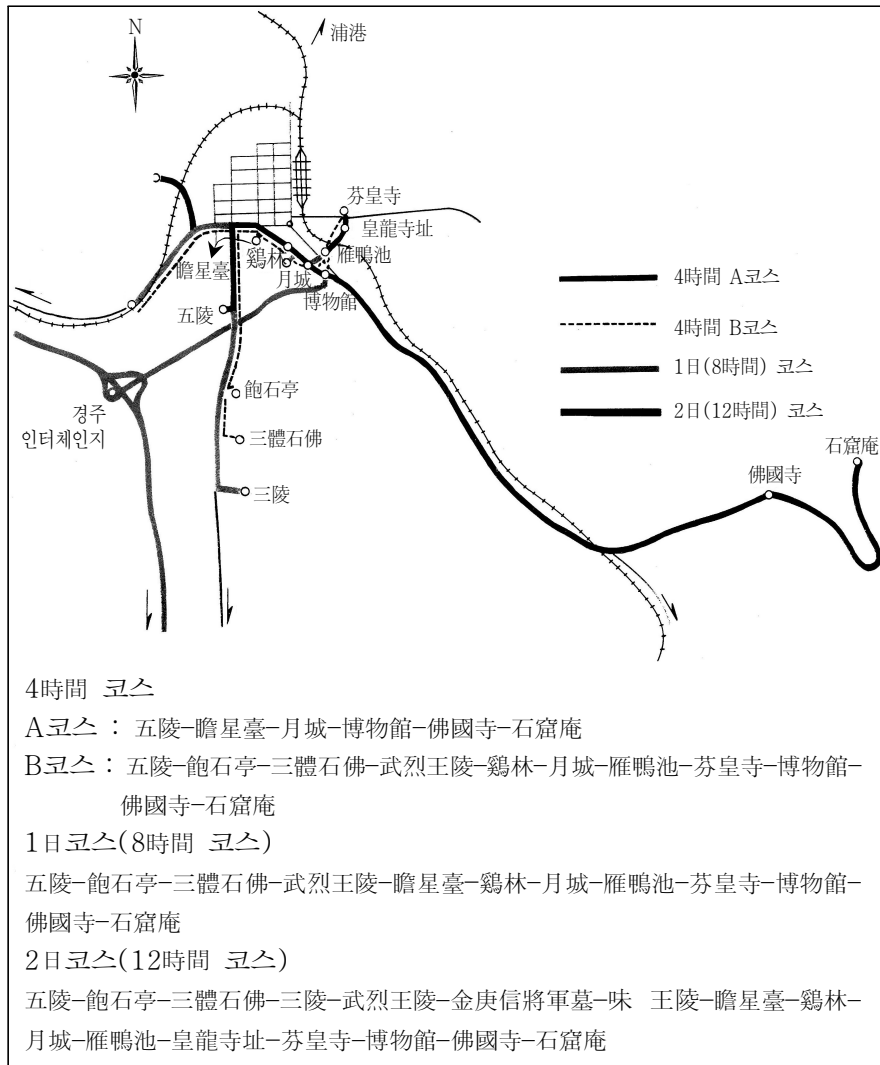


그림2-경주 관광코스 55)

박정희는 포항제철을 시찰하거나 진해의 해군사관학교를 다녀올 때면 경주 보문단지에서 숙박하였다. 특히 보문단지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던 1979년에만 네 번 방문했으며⁵⁶⁾, 10·26 사건이 일어나기 2주일 전에도 외교사절들과 함께 보문단지 컨벤션센터에서 리셉션을 열고 골프를 치기도 하였다.

경주종합개발 기간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총 10년으로 잡았다. 우선 1단계의 5년(1972-1976년)은 경주시의 기반시설과 사적지구 정비

55)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건설부, 1971), 146쪽의 그림1에 박정희가 그린 경주 관광코스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56) 한국여행신문사특별취재팀, 『한국관광 50년 비사』(한국여행신문사, 1999), 337쪽.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2단계의 5년(1977-1981년)은 정비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경주를 문화관광도시로 변모시키고자 하였다.⁵⁷⁾ 10년간의 경주관광종합개발을 통해 변화하게 될 경주의 미래상은 국제관광도시로의 탈바꿈이었다. 또한 관광사업의 발전으로 인해 고용증대가 이루어지고, 토산품 생산업이나 상업 등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제관광도시로의 경주가 국내의 다른 관광자원 개발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⁵⁸⁾

2. 경주개발 자금 마련

경주를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재원 마련이었다. 이를 위해 계획 초기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도입을 준비하였다. 정부는 1969년의 「관광개발기본계획」과 1970년의 도시 재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IBRD에 평가조사단을 요청했고, Philip Glaessner를 단장으로 한 IBRD 조사단이 경주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였다.⁵⁹⁾ 그리고 IBRD 차관을 통해 경주를 개발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적중하였다.

1970년대 들어 IBRD에는 관광사업을 담당할 부서가 만들어졌다. 경주 개발계획을 작성 중이던 1971년 6월 IBRD는 처음으로 유고슬라비아의 베빈쿱(현재의 크로아티아 바빈쿱) 관광사업에 대하여 2천만 달러를 현금 차관 방식으로 공여하였다. 베빈쿱 관광사업은 관광호텔과 식당 및 주택사업으로, 총 사업비 4,200만 달러 중 46%에 해당하는 차관을 IBRD로부터 지원받았다.⁶⁰⁾

정부는 IBRD가 관광사업에 대해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일찍이 주목하고, 경주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IBRD를 통해 조달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였다. 그래서 베빈쿱 관광사업을 참고하여 IBRD에

57)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앞의 계획서, 26쪽.

58) IBRD로부터 받은 차관 금액 중 25만 달러는 제주도를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대통령비서실, 『경주관광종합개발 세계은행 차관협약의 결과보고』(1973. 11), 3쪽.

59) 경주개발건설사무소,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지』(건설부, 1979), 21쪽.

60)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앞의 계획서, 135쪽.

61) 위의 계획서, 136쪽.

표1- 정부에서 예상한 차관규모(단위: 천 달러, ()는 백만 원)⁶¹⁾

구분별 사업별	차관소요액		내자소요액		계	
	금액	%	금액	%	금액	%
총계	23,940(8,977)	31	(19,841)	69	(28,818)	100
도로사업	8,000(3,000)	43	(3,898)	57	(6,898)	100
상하수도사업	1,600 (600)	18	(2,697)	82	(3,297)	100
관광시설사업	10,340(1,500)	46	(4,656)	54	(8,533)	100
사적지구 정비사업	4,000(8,977)	39	(2,343)	61	(3,843)	100
계	23,940	40	(13,594)	60	(22,571)	100
총 내자사업			(6,247)	100	(6,247)	100

요청할 차관 금액을 2,394만 달러(89억 7,700만 원)로 책정하였다. 이 금액은 경주관광개발에 필요한 총 공사비 288억 1,800만 원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로, 상하수도, 관광시설, 사적지구정비에 소요될 총비용 225억 7,100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을 건설하기 위해 재무부가 IBRD에 요청한 차관액이 3,03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한국정부의 차관요청을 받은 IBRD는 Vera를 단장으로 한 아홉 명의 평가조사단을 1973년 4월 8일에 한국에 파견하였다. 4월 29일 출국하기까지 평가조사단은 20여 일에 걸쳐 서울과 경주 현지를 오가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마친 조사단은 지원할 차관규모를 2,160만 달러로 예상하고, 보문호 주변에 3,000실 정도의 호텔과 부대시설들을 건설할 것을 주문하였다.

평가조사단의 예비조사 후 같은 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경주개발을 위한 IBRD와의 차관협정을 위한 최종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협의회에서 IBRD는 차관집행기구로서 경주관광기구(Kyungju Tourism Agency: KTA) 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경주관광기구를 통해 경주관리사무소에서 건설하는 보문지구 시설의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고, 관광객 숙박시설 및 기타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정책의 수립 및 수행을 맡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투자 활동을 유도하여 호텔 종업원을 훈련시키는 계획과 민간호텔업자의 고용정책에 관한 규제를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차관이 경주시의 관광지구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수혜가 균등하게 가도록 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⁶²⁾ 마지막으로 ① 보문호 근처에 덕동댐 건설, ② 경주시

상하수도 시설의 정비, ③ 보문지구 및 인근지역의 전기시설 마련, ④ 보문지구 개발 도로 정비를 언급하면서 평가조사단의 예상금액인 2,160만 달러보다 340만 달러 늘어난 2,500만 달러의 차관 지원을 결정하였다.⁶³⁾

이런 IBRD의 요구조건과 증액된 차관 제시에 박정희는 계획의 집행과 운영을 담당할 경주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박정희는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농림부·교통부·문공부 장관을 위원으로 한 경주개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경주개발위원회는 경주종합개발계획의 세부집행 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의 조정, 예산확보, 집행상의 문제점 해결 및 정기적인 추진 현황 확인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집행기구로서 건설부장관 직속에 경주개발공사사무소를 설치하여 도로, 치수, 상하수도 등의 사업과 기타 사적지 정비, 관광시설사업, 경지정리, 전신, 전화, 철도, 전기 등의 사업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특히 각 사적지구의 문화재 감시업무에 특별인원을 배치하였다.⁶⁴⁾

차관 이외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경주시,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부담할 것을 합의하였다. 조림(造林), 공항, 철도, 전신 및 전화사업, 사적 보수정비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부담하여 진행하고, 경주시는 도시공원 조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관광호텔과 같이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호텔 옆에 건설하기로 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도록 했는데, 이는 차관으로 건설할 경우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⁶⁵⁾ 이렇게 하여 경주관광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금액 2억 8,818만 원 중 중앙정부가 1억 4,333만 원(50%)을, 지방정부가 6,954만 원(24%)을 부담하고, 나머지 7,531만 원(26%)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⁶⁶⁾

62) 재무부, 「경주관광개발사업을 위한 IBRD 차관 협정 체결」(1973), 153-154쪽.

63) 대통령비서실, 앞의 계획서(1973. 11), 1-3쪽.

64)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앞의 계획서, 138쪽.

65) 대통령비서실, 「경주관광종합개발 IBRD 평가조사 결과보고」(1973. 5), 2쪽.

66)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위의 계획서, 133쪽.

IV. 새로운 역사 만들기

1. 문화재 발굴과 복원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인 목적이 강조되었지만 박정희는 문화재 보존과 외화획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만 우리의 전통문화를 빛내고 민족의 주체성을 드높이며 국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⁶⁷⁾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진행되는 와중에 문화재의 보존과 외화획득을 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한다.

박정희는 경주개발의 일환으로 고고학자들에게 경주에서 가장 큰 무덤인 황남동 98호분을 발굴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만 1971년에 공주 무녕왕릉 발굴이 줄속으로 진행된 전례가 있었고,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고고학계는 발굴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었던 고고학자들은 대안으로 98호분 앞에 있는 작은 무덤(황남동 155호분)을 시범적으로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⁶⁸⁾ 98호분을 발굴하는 대신 그 앞에 있는 155호분을 발굴해 별다른 유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98호분 발굴을 중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렇게 해서 1973년 4월 6일부터 황남동 155호분 발굴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이 고분을 발굴하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7월 3일에는 발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굴단원들에게 금일봉을 하사하고, 금관이 나오는지 여부를 묻곤 하였다.⁶⁹⁾ 그리고 8월 23일 155호분에서 금관을 비롯한 수천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굴된 유물들 중 눈에 띄는 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작나무에 하늘을 날아오르는 말을 채색한 그림(천마도)이었다. 이렇게 발굴된 고분이 바로 천마총(天馬塚)이다. 결국 학계의 바람과는 다르게 천마총 발굴의 대성공으로 인해 98호분

67) 《경향신문》, 1972년 11월 3일자.

68) 《중앙일보》, 2011년 6월 7일자.

69) 한국고고학학회 엮음, 앞의 책, 416쪽.

역시 결국 발굴하게 되었고[이 98호분이 황남대총(皇南大塚)이다] 여기서도 수많은 신라의 유물이 출토되었다.⁷⁰⁾

출토된 유물에 관심이 많았던 박정희는 발굴한 유물뿐만 아니라 고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관람객들이 고분 속을 직접 들어가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해⁷¹⁾ 고분을 하나의 관광수입원으로 만들었다. 또한 천마총 발굴에 대한 6시간짜리 기록 다큐를 제작해 해외로 보내기 등 경주와 신라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⁷²⁾

경주의 신라유적 발굴은 고분에서 그치지 않았다. 1979년 1월 4일에는 황룡사(皇龍寺) 발굴현장을 방문한 후 “조사 완료 후 신라시대의 특색 있는 담장을 고증하여 쌓고 담장 안의 사찰 유구를 그대로 두되 9층 목탑은 복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콘크리트로 세우는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내렸다.⁷³⁾

그러나 문화유적 복원에 대한 박정희의 관심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970년대 들어 새로운 복원기술들이 문화재 관리에 적극 반영되었는데⁷⁴⁾ 특히 1969년 광화문 복원에 처음 도입된 콘크리트 공법은 경주 남산에 건립된 통일전(統一殿)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당시 일본 교토[京都]의 사천왕사를 시작으로 북한, 중국 역시 콘크리트로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추세였다. 복원에 필요한 나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콘크리트가 문화재 복원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이유는 콘크리트로 복원할 경우 다른 재료보다 수명이 오래갈 것이라는 박정희의 개인적인 판단에서였다.⁷⁵⁾ 박정희는 복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통일전 건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앞으로 다른 곳에 짓는 옛

70) 1970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도 신라유적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적들이 발굴되었는데 특히 경주-부산 간 구간에서 신라의 유적들이 대량 발굴되었다. 그러나 유적 발굴은 고속도로 건설을 지체시켰고, 발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박정희는 도로건설 공사비에 발굴비를 포함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1972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건설 및 시설공사의 시행청과 시행자가 발굴 경비를 다 부담하도록 법제화하였다. 한국고고학학회 엮음, 위의 책, 413쪽.

71) 최보식,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 특별전…… 36년 전 발굴했던 김정기翁』, 《조선일보》, 2010년 9월 13일자.

72) 한국고고학학회 엮음, 위의 책, 433쪽.

73) 조유진, 『발굴이야기』(대원사, 1997), 211쪽.

74) 1970년대 반영된 새로운 기술은 ① 기와의 개량, ② 콘크리트 공법의 도입, ③ 단청의 개발, ④ 약품과 재료의 개발이다. 문화공보부, 앞의 책, 305-307쪽.

75) 《중앙일보》, 2011년 5월 10일자; 《경향신문》, 1974년 6월 11일자.

건물들은 모두 통일전을 기준으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⁷⁶⁾ 그러나 박정희가 제시한 복원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엄격한 의미에서의 복원이 아니었고, “신라고도는 웅대, 찬란, 정교, 활달, 진취, 여유, 우아, 유현의 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할 것”과 모순되기도 하였다.⁷⁷⁾

2. 통일전과 화랑의 집

박정희의 경주개발은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복원에 그치지 않고 신라의 역사인물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바로 경주에 세워진 통일전이다. 통일전 건립은 1974년 6월 10일 낙성대 정화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가 역사상 최초의 통일을 이룬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한 위인들의 유적을 조성하라고 윤주영(尹胄榮)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⁷⁸⁾ 1974년 11월 8일 박정희는 김유신(金庾信)과 더불어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문무왕(文武王)까지 포함한 세 명을 모실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통일전을 설립할 부지는 경주 남산 화랑의 집 근처로 확정하였다.

1976년 4월 22일 공사를 시작해 1977년 9월 7일에 건립된 통일전은 총 6억 4,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⁷⁹⁾ 본전인 통일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커다란 공헌을 한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의 영정⁸⁰⁾을 모셔놓았고, 본전을 둘러싼 회랑에는 신라시대에 대한 기록화 8폭⁸¹⁾을 전시해놓았다. 『문화공보30년』에는 통일전 건립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자주통일을 위한 오늘날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신적 지주로 삼은 뜻에 있다. 둘째로는 통일전의 조성은 과거에 세워진 유적의

76) 《경향신문》, 1977년 9월 7일자.

77) 현대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유적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 당시 언론에서도 “신라시대에는 시멘트가 없었다”, “날던 새가 부딪쳐 죽은 술거(率居)의 황룡사 소나무 벽화를 잘못 손질해 그림의 진가를 떨어뜨린 어리석은 중”이라며 비판하였다. 《동아일보》, 1977년 8월 24일자.

78)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지』에는 낙성대 준공식이 7월로 나와 있으나 6월 10일이 정확한 날짜다.

79) 경주개발건설사무소, 앞의 책, 540쪽.

80)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영정은 김기창 화백이, 김유신 장군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그렸다.

81) 8폭의 그림은 삼국통일 과정의 중요 사실을 그린 것으로 오승우 화백이 그렸다.

보수나 복원이 아닌 이 시대의 발전상과 기술을 동원하여 새로 조성된 창조적 문화유적인 점에 있다. 셋째로는 통일전을 조성함에 있어 종래의 단청 수법(手法)을 벗어나 품위 있고 우아하면서도 소박간결한 미색단청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바 이는 전통문화의 소극적 보존으로부터 벗어나 적극적인 계발을 이룩하려는 노력의 한 성과인 것이다.⁸²⁾

박정희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과거 남한 세력이었던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기념하는 통일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이를 성역화함으로써 남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이려고 하였다.

통일전에 대한 박정희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은 경내 곳곳에 잘 나타나 있다. 본전인 통일전까지 가기 전에 세운 문의 이름을 삼국통일로 나라를 ‘흥하게 한 신라의 옛일에서 따고, 줄기차게 뻗어가는 새 한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문’이라는 뜻의 흥국문(興國門)과 ‘오늘의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지니고 본전을 들어간다’는 뜻의 서원문(誓願門)으로 지었다.⁸³⁾ 통일전의 현판 글씨를 박정희 본인이 직접 썼으며, 태종무열왕릉비를 고증하여 삼국통일비를 세웠다. 또한 문화재 전문가를 일본의 나라[奈良]로 파견해 신라와 동시대 건물을 참조해 통일전을 짓도록 했으며, “앞으로 다른 곳에 짓게 되는 옛 건물들은 모두 통일전 본전을 기준으로 하도록”⁸⁴⁾ 지시하였다.

주체적 민족사관을 부각시키고 통일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박정희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는 정신수련기관의 설립에서도 나타났다.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신라의 역사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내면화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심을 동원함으로써 국민들을 국가와 연결시키고자 하였다.⁸⁵⁾ 또한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되살리고 국민정신을 함양하며 국난극복의 슬기를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⁸⁶⁾ 박정희는 경주에 화랑의 집을 건립해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의 인물과 화랑도를 하나로 묶고, 그 정신을 재현하고자 하였다.

82) 문화공보부, 앞의 책, 289쪽.

83) 《경향신문》, 1977년 9월 7일자.

84) 《경향신문》, 1977년 9월 7일자.

85) 권오헌, 앞의 논문, 13쪽.

86) 문화공보부, 위의 책, 284쪽.



사진1-경주 남산 통일전(좌)과 박정희가 쓴 현판 글씨(우)

박정희는 화랑도를 “훌륭한 선배나 동료 화랑을 중심으로 집결되어 낭도(郞徒)를 이루고, 그 낭도는 국민군의 사단 혹은 연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큰 전공을 세운 국민적인 군사운동”⁸⁷⁾으로 보았다. 또한 “우리의 고유 신앙과 불교의 호국사상이 합류되어 주조(主潮)를 이룬 자주의 정신이자 진취의 기상이라 말하며, 이것이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⁸⁸⁾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화랑의 정신을 보여준 인물로 신라와 백제가 싸우던 황산벌에서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전사한 관창과 싸움에 나가 노복의 간권(諫勸)으로 살아온 원술랑을 꾸짖고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한 김유신의 부인인 지소(智炤)를 언급하였다.⁸⁹⁾

통일전에서 1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주 남산 기슭에 위치한 화랑의 집은 1970년 11월 3일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1973년 5월 30일 준공·개원되었다. 화랑의 집은 3만 6천여 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에 35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한 기수에 300명가량의 학생들이 입교하여 3박 4일 동안 교육을 받았다. 화랑의 집에서의 교육은 하루 16시간에 걸친 강행군으로, 교육 내용은 화랑의 수련법, 화랑정신, 무술연마, 예절생활, 야영, 등산법, 봉사활동 등의 12개 부문이었다.⁹⁰⁾

새벽 6시 기상과 함께 화랑체조로 시작하여 오전 8시부터 강당에서 화랑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태권도, 궁도, 씨름과 행군 야영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여기에 경주 일대의 문화재와 사적 등을 답사하는 등 매우 빡빡한 스케줄로 채워졌다. 특히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

87) 박정희, 앞의 책(1971), 14쪽.

88) 위의 책, 15쪽.

89) 위의 책, 14쪽.

90) 《동아일보》, 1973년 7월 4일자.

의 기상 및 취침 시간은 정해져 있고, 교육시간에 지각은 절대 허용되지 않았으며, 행동과 복장은 단정해야 했다. 화랑의 집 교육이 얼마나 고되고 엄격했던지 당시 한 교육생은 “자유시간이 거의 없어 한 방 친구들과끼리 인사조차 나눌 시간이 없어 섭섭하다”⁹¹⁾고 말할 정도였다. 화랑의 집 교육대상자는 경상북도의 학생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 전국의 학생들과 사관생도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매년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성화를 화랑의 집에서 채화하여 스포츠에까지 화랑의 정신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진행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의 목적과 추진 과정을 살펴보았다.

박정희는 한국의 과거 역사를 타파해야 할 인습으로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박정희의 역사관은 1970년대에 들어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 주체적 민족사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역사관의 전환에는 경제개발의 성공에 따른 자신감과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고자 했던 의지가 담겨 있다. 두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은 자기긍정의 명분을 제공했고,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은 통일에 대한 정당성 획득 경쟁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1970년대 박정희의 변화된 역사관의 중심에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역사와 인물들이 있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찬란한 문화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이며, 화랑도는 자주와 민주,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민족의 민족정신으로 승화되었다. 또한 남북한의 체제 경쟁 속에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강조와 화랑정신의 계승은 박정희로 하여금 통일의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듯 민족정신 고취 및 통일의지 고양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수립된 것이 경주고도개발사업이다.

91) 《동아일보》, 1973년 7월 21일자.

둘째,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상황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철수를 시작한 시기로, 베트남 특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박정희는 경주의 문화유적과 관광을 결합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주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IBRD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보문단지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경주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주고도개발사업은 갑작스런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중단되었다. 1981년까지로 예정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은 이후 진행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담보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박정희 사후 경주는 왜 더 이상의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일까?

첫째, 경주개발에 담겨 있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경주개발고도사업은 철저히 박정희 개인의 생각과 의지의 산물이다. 신라역사와 전통문화육성이 박정희 개인적 선호와 정치적 목적에 맞춰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⁹²⁾, 박정희 개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만큼 이후 대통령과 정부가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없었다. 또한 박정희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각인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전통문화를 개발하고 다른 문화유적을 발굴하는 편이 유리하였다. 결국 새로이 들어선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필요한 새로운 전통문화정책을 찾고자 하였다. 박정희 이후 집권한 전두환은 쿠데타를 통한 정권 획득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문화정책 및 성역화 사업의 목적은 같았으나 그 방법이 달랐다. 역사적 인물 중 군인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박정희와 다르게 전두환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성역화 사업⁹³⁾과 제주도관광사업에 집중하였다.

둘째, 개발방법의 잘못 때문이다. 박정희는 고증을 통해 철저히 당시의 유적을 복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모든 문화재를 획일적으로 복원하였다. 전문가의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전통적인 방식의 복원이 아닌 현대의 기술과 재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유물을 발굴하고 유적을 복원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였다.⁹⁴⁾

92) 최연식, 「박정희 시대 근대화 담론 속의 전통: 전통의 선별과 강조」, 『전통과 현대』 22호(2005), 42쪽.

93) 은정태, 앞의 논문, 276쪽.

94) 경주개발동우회, 앞의 책, 56-57쪽.

경주고도개발사업 속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불어넣고자 ‘새로운 역사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신라의 고분을 발굴하고 출토된 유물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신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 통일 의지를 주입시키고자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한 인물들을 기리는 사당인 통일전을 세우고 성역화하였다. 그리고 화랑의 집 건립을 통해 화랑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했으며,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박정희의 ‘새로운 역사 만들기’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수용되고,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다.

참 고 문 헌

- 경주개발건설사무소,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지』. 건설부, 1979.
- 경주개발동우회, 『그래도 우리는 신명바쳐 일했다』. 고려서적, 1998.
- 경주시, 「관광개발기본계획」. 경주시, 1969.
- 권오현, 「역사적 인물의 영웅화와 기념의 문화정치」.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정렴,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랜덤하우스중앙, 2006.
- 대통령비서실, 「경주개발차관추진을 위한 조치」.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EA0006325), 1972.
- _____, 「경주 관광종합개발 세계은행 평가조사 결과보고」.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EA0002110), 1973.
- _____, 「경주 관광종합개발 세계은행 차관협약의 결과보고」.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EA0002138), 1973.
- _____, 「경주 관광종합개발 세계은행 차관협약의 대책」.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EA0002135), 1973.
- _____, 「경주지구 발굴계획」.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EA0002106), 1973.
- _____, 「경주보문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EA0002190), 1977.
- _____,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5집. 대통령비서실, 1969.
- _____,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6집. 대통령비서실, 1970.
- _____,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9집. 대통령비서실, 1973.
- 대한민국 정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 경제기획원, 1971.
-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문화공보부, 1979.
- 박영택, 「박정희 시대의 문화와 미술」. 『한국근대미술사학』 15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5, 207-241쪽.
- 박정희, 『우리 민족의 나날 길』. 동아출판사, 1962.
- _____,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1963.
- _____, 『민족의 저력』. 광명출판사, 1971.
- _____, 「나의 소년시절」. 《월간조선》, 1984년 5월호, 84-95쪽.
- 심재권,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 비핵화와 대안적 안보체제』. 한울, 1996.
-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4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998, 121-152쪽.
- 유상수, 「5·16 군사정부의 공보정책: 공보조직의 변천과정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5·16 군사정부수립 50년 학술회의, 2011. 5. 14, 97-117쪽.

- 은정태,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제15호, 2005, 241-277쪽.
- 이영화, 「북한의 고대사 연구 동향」, 『한국고대사탐구』 3권,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09, 12, 169-203쪽.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주연, 「전통에 관한 담론 분석: 문화정책과 대통령 담화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인태정, 「한국 근대 국민관광의 형성과정-박정희정부 시기의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28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355-374쪽.
- 임원현·황오기, 「관광개발기본계획」, 『경주대학교 논문집』 7집, 경주대학교, 1995, 247-263쪽.
- 재무부, 「경주관광개발사업을 위한 IBRD 차관 협정 체결」,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EA0022673), 1973.
- 전재호, 「민족주의와 역사의 이용: 박정희 체제의 전통문화정책」, 『사회과학연구』 7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83-106쪽.
- 정갑영, 「우리나라 전통 문화 정책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 『정신문화연구』 23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15-32쪽.
- 정유선, 「귀순자의 남한사회 적응과정과 일상에서의 실천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조유전, 『발굴이야기』, 대원사, 1997.
- 청와대 관광개발계획단,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건설부(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11M36370), 1971.
- 최연식, 「박정희 시대 근대화 담론 속의 전통: 전통의 선별과 강조」, 『전통과 현대』 22호, 2005, 35-52쪽.
- _____,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7, 43-73쪽.
- 한국고고학학회 엮음, 『일곱 원로에게 듣는 한국 고고학 60년』, 사회평론, 2008.
- 한국사학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북한의 역사 만들기: 북한역사학 50년』, 푸른역사, 2003.
- 한국여행신문사특별취재팀, 『한국관광 50년 비사』, 한국여행신문사, 1999.
- 허련화, 「김동리의 장편역사소설 <삼국기>와 <대왕암>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1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0, 409-438쪽.
- 홍석률 외, 『박정희시대 연구』, 백산서당, 2002.

《경향신문》. 1972년 11월 3일자; 1977년 9월 7일자.

《동아일보》 . 1973년 7월 4일자; 1973년 7월 21일자.
《매일신문》 . 2006년 10월 14일자.
《조선일보》 . 2010년 9월 13일자.
《중앙일보》 . 2011년 5월 10일자; 2011년 6월 7일자.

이 글은 1971년부터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살펴보고 있다. 1960년대 박정희는 우리의 역사를 타파해야 할 인습으로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역사관은 1970년대에 들어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역사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부정적 역사관에서 긍정적 역사관으로 바뀐 이유는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다.

1970년대 박정희의 전환된 역사관의 중심에는 신라가 있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찬란한 문화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가 되었고 화랑도는 자주와 민주,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민족의 민족정신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분단 상황이 남한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통일의 정당성이 필요할 때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강조와 그 정신의 계승은 박정희로 하여금 정당성 획득의 기반이 되었다. 박정희의 경주고도개발사업은 민족정신 고취 및 통일의지 고양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수립된 것이고, 이는 1970년대 들어서 전환된 박정희의 역사인식에 기댄 바 크다.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상황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철수를 시작한 시기였고, 베트남 특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경제개발은 경주의 문화유적과 관광을 결합시킴으로써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주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IBRD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보문단지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경주의 모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박정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경주고도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미완성에 그치고 만다.

경주관광개발과 더불어 박정희는 자신의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불어넣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 만들기’를 시도하였다. 신라의 고분을 발굴하고 출토된 유물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통일의 정당성과 정권의 정통성을 동시에 획득하고자 하였다. 또한 박정희는 신라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 통일 의지를 주입시키고자 신라의 삼국통일에 기여한 인물들을 기리는 사당인 통일전을 세우고

성역화하였다. 그리고 화랑도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화랑의 집을
건립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고
자 하였다.

투고일 2011. 12. 19.

수정일 2012. 2. 10.

게재 확정일 2012. 2. 17.

주제어(keyword) 박정희(Park, Chung-hee), 역사관(View of History), 경주관광종합개발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Gyeongju Tourism), 새로운 역사 만들기(Creation of a
New History), 화랑도(Way of the Flower Youth)